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제 전체 아우를 대안 마련 시급”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포럼 광주전남연 김기곤 연구실장 “운영 전문성·동력 확보 중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이 9일 통합된 조직으로 새출발하고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의미를 확대 강화하고, 운영 기반 또한 확대 재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관련 법과 제도, 조직과 인력, 문화 구축 등 운영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은 6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제17차 아문도

시 이슈포럼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송진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호남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은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전당 효과가 확산하도록 운영 전문성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아특별

개정안에 전문인력 대폭 충원, 문화전당 및 아시아 문화원이 축적해 온 유무형 자산 연계 문제점 등을 담은 부칙이 삭제된 점은 우려할 사항”이라며 “문화전당 기능과 역할 확대, 업무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현재 문화전당 정원은 322명이다. 48명이 정규직이며 270명이 공무원이다. 이들은 문화전당 운영 기본정책 및 계획수립, 아시아문화예술 교류·협력,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개발 등을 맡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정규직 96명, 공무원 153명이 문화전당 운영·수탁 업무, 콘텐츠 창작 및 유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문화

전당 일원화 시 최소 정규직 전문인력만 423~482명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문화전당은 322명 가운데 48명(일반공무원 32명·임기제 전문위원 16명)이 정규직이며 공무원(무기계약직)이 274명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원은 총 인원 249명 가운데 정규직이 96명, 공무원(무기계약직)이 153명이다. 지난 2015년 아특별 개정안 당시 문제위에서 정규직 경우 문화전당 100명, 아시아문화원 200명을 요구했지만 당시 행안부에서 그 절반으로 인원을 축소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통합된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영역의 전문역량(전문성)을 어

떻게 확보할지, 인력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야 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는 문화전당이 지역 인력과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연구실장은 “문화전당 직제 편성 방식 및 인력 운용 규모는 전문성과 안정성에 기반해 확대 편성돼야 한다”면서도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유무형 자산이 빠짐없이 승계돼 다양한 가치를 복합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70~74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사전예약 첫날인 6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콜센터에서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대상자들의 전화접수를 도와주고 있다.

여수·고흥·순천, 코로나 확산세 지속...전남 누적확진자 1115명

고흥 제사모임, 여수 유흥업소발

전남에서는 고흥과 여수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 5일 10명, 6일(오후 6시 현재)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115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7명, 고흥 6명, 순천 1명이다.

여수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전남 1070번(40대 남성) 확진 이후 유흥업소를 매개로 여수와 순천, 고흥에서 각각 22명, 5명,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6일 여수에서 확진된 전남 1114번, 1115번(모두 20대 남성)은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다.

고흥에서는 공무원발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다. 고흥지역 연쇄 감염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방역수칙을 어긴 제사모임이 지적되고 있다.

확진자가 쏟아지기 이전인 지난달 27일 고흥에서 제사모임이 있었고 당초 조사에서 제사에 참석한 인원이 4명으로 조사됐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10명이 넘는 일가족 등이 모였다는 것이다. 고흥 제사모임에 참석한 광주 30대 1명도 확진되는 등 모임을

통해서만 9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각 간 모임이 많아지는 5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자신의 안전은 물론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라며 “이

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밀폐된 시설이나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예방접종 궁금증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전남도, 절차·접종기관 등 24시간

전남도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남콜센터는 지난 4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에서는 ▲예방접종 절차 ▲예약 방법 및 접종기관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연말까지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전문 상담원 6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코로나 예방접종 문의는 전화 120 또는 286-1337-1339번으로 하면 된다.

22개 시군에서도 코로나19 콜센터를 개소해 전문 상담원 72명이 백신접종에 대한 문의 및 6일부터 실시하는 사전 예약을 지원한다. 김영록 전도지사는 “콜센터 운영으로 24시간 도민 곁을 지키면서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접종 후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남지역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5765명 중 5만 6620명(86.1%), 2분기 대상자 27만 27명 중 15만 6092명(57.8%)이 접종을 완료했다. 누적 접종자는 21만 2712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경영난’ 광주패밀리랜드 5년 계약 연장

2026년 6월까지 위탁운영...45억 투입 신규 놀이시설 등 도입

광주·전남지역민들의 나들이와 체험학습 명소인 광주패밀리랜드가 코로나19 폐업 위기를 딛고 5년 간 추가로 위탁 운영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패밀리랜드(주)와의 관리위탁 계약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5년 간 연장했다.

패밀리랜드는 6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눈덩이 적자에 폐업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부대비용 등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었고, 급기야 지난해 12월부터는 한 달 남짓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적자폭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 업체 측은 지난해 7월 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일인 6월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해 왔다.

시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간 위탁료를 6억 9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20% 가량 할인해줬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재계약이 최종 무산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새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벼랑 끝 상황에서 업체 측은 주주들과의 내부 논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시가 위탁계약 5년 갱신 신청을 받아들여면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업체 측은 공격적인 투자 등을 통해 패밀리랜드가 지역 대표 관광형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최고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수



영장 부지를 카트경기장으로 개도하고, 해양전시관과 신규 놀이시설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시비 6억 원을 투입해 입구 계보수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의 경우 지난해 소생수사를 짓는 등 노후 시설을 절반 이상 교체한 데 이어 올해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큰물새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내 대표 놀이·휴식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 ###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 ###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조희(801130-XXXXXX)
- 최후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15-13
- 피상속인 방 조희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 396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 제외됩니다.
- 2021년 5월 7일
- 상속인 : 1. 김은희(810918-XXXXXX) 2. 조원희(11123-XXXXXX) 3. 조원우(130407-XXXXXX) 4. 조원아(161006-XXXXXX)
- 상속인 1, 2, 3, 4의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15-13
- 상속인 2, 3, 4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전권자 모 김은희
- 신고기간 : 2021. 5. 7. ~ 2021. 7. 16.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김은희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1년 4월 29일 주주서면 결의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주식회사 에덴상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20층 112호 (매월동, 광주산업융합유통센터)
청산인 이경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세종

광고문의 : (062)227-9600
신문구독 : (062)220-0551
여행구독 : (062)220-0550

꽃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